**7주차 개항기&개화사상 총정리**

1. **동아시아의 근대**
   1. 내제적 발전단계(일본학계)
      * 한국이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시대별로 단계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, 역사적으로 정체되어 왔다는 주장.
   2. 세계사적 환경(세계체제론)
      * 핵심-주변-반주변, 지리적 계층구조
   3. 구조적 외압: 서구의 동아시아 침략
      * 한국 – 식민지(주변)
      * 중국 – 반식민지(주변)
      * 일본 – 제국주의(반주변)
      * 결론: 동아시아의 역사 자체가 수동적임.
        + But, 동아시아 각국은 내부로부터 근대화 요구가 있었으며, 변혁을 통해 근대를 수용(갑신정변, 갑오개혁…)
   4. 동아시아 삼국 간의 관계
      * 근대화의 과정에서 상호 영향
2. **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**
   1. 산업혁명, 자본주의의 성장
      * 산업혁명으로 공산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넘치는 상품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어 국외로 팔기 시작. 또한, 원료를 싼 값에 구하기 위해도 무역이 시작됨. 이에 따라 자본주의가 성장함.
   2. 서구의 아시아 진출
      * 원료공급지 & 상품의 시장으로 아시아로 동방항로 개척함.
      * 동방항로가 개척된 이유: 유럽인들이 실크로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, 산업혁명 이후 더 세계로 진출하려 함. 동아시아의 최대 시장은 중국
   3. 서세동점
      * 중국: 남경조약 -> 아편전쟁 후 영국에 굴복하여 체결
      * 일본: 미일화친조약 체결할 때는 아직 개항 안함.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개항 시작
      * 조선: 조일수호통상조약(강화도 조약)으로 개항 시작. 이후 서구와도 조약 맺음. 조선은 서구가 아닌 일본에게 개항 압력을 받은 것이 특이점. 개항 이후에 외세도 서구열강보다는 일본과 중국이었다.
3. **양절체제 & 청일전쟁**
   1. 화이질서
      *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: “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”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음. 조선은 아직 청의 종주국임.
   2. 만국공법 질서 – 여러 나라는 똑같은 질서의 적용을 받는다.
      * 양절체제(유길준): 중국과는 전근대적인 조공책봉 관계(화이질서)가 유지되고, 다른 나라와는 근대적 조약 맺기(만국공법 질서)도 하는 이중적인 국제질서.
   3. 청일전쟁의 의의
      *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재편, 근대로의 이행(일본학계)  
        : 일본이 조선을 화이질서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.
      * 조선을 화이질서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님(한국학계)  
        : 조선은 이미 화이질서에서 해체되고 있었음. 위안스카이의 조선 내정간섭은 오히려 근대적 식민지배를 시도한 것.
        + - **★조선을 근대적 식민지로 획득하려는 중국과 일본의 충돌★**

* **삼국의 서구 문물을 접목시키려는 이론**
  + 중체서용, 동도서기론, 화혼양재
  + 체, 도, 혼이 각 나라의 것을 말하고, 용, 기, 재가 서구 문물을 말한다. 즉, 서구 문물을 온전히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각 나라의 것과 접목시키려 했다. 따라서, 서로 유사성을 띠나 각기의 특징이 있다.

1. **중국의 ‘중체서용’**
   1. 해방론 - 아편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,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임칙서 등이 주장. 서양의 기선이나 대포 제작을 배워야 한다. -> 본격적 중체서용론은 아니고 출발점
   2. 양무운동의 서용
      * 60년대: 자연과학과 기술이 서양의 부국강병의 방법. (서용의 실용적 측면) -> 중체서용의 출발점
      * 7-80년대: 근대적 상공업제도(과학기술보다 넓은 범주), 정치제도(초기변법론)
      * 무술변법파(급진변법파): 의회라는 서양의 정치제도 도입. 중국 정치체제 개혁 주장.
      * 청일전쟁 패배 이후 급진변법파: 민권과 헌법 거론. 전통적 정치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침해하는 개혁이었음. 즉, 중체를 훼손한다. -> 보수파의 강렬한 반대로 쓸려나감.

* 중체서용의 재구성  
  : ‘중체(유교적 윤리와 정치체제)’를 지키려는 보수적 논리로 재구성됨. 이전에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는 쪽이었음. 즉, 중체서용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(근대화의 기능)와 80년대이후(중체를 지키려함. 다소 보수적)의 의미가 다르다.

1. **조선의 ‘동도서기론’**
   1. 초기의 개화사상 – 중국 해방론의 영향.
      * 박규수 – 북학사상을 토대로 해방론을 절충 수용하려는 인물. 서양세력의 침략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반응 모색하려던 인물. 개화 인물.
        + - 서법과 동교를 대비적으로 사고하고, 그 동교가 장차 서양으로 스며들어 서양인까지 교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
          - 동교의 손상 없이 서법의 수용을 인정(동도서기의 단초를 열어간 인물)
   2. 강화도 조약 이후 – 부국강병의 개화 정책 vs. 척사론(유생들…)  
      : 이런 척사론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논리가 동도서기론. 서기가 동교를 침해하진 않을 것.
2. **동도서기론의 논리 구조**
   1. 신기선의 농정신편서 – 동도 vs 서기라는 구도
      * 서법이 기독교의 수용은 아님. 서법은 문물제도라는 의미의 기, 또는 그것을 제작/운용하는 방법임
      * 서교는 학문/사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와 같다. 또는 도와 연관되는 것
        + - 서법 또는 서기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도를 서교나 서도가 대체함을 의미하지 않음
          - 동도과 서기가 서로 결합할 수 있다.
          - 서양의 근대적 생산력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서기로 인해 동도가 침해 받을 수는 없는 것, 동도가 서기보다 우선한다.
3. **갑신정변 이후의 동도서기론**
   1. 변법개화파: 갑신정변
      * “일본은 변법한 이후로 모든 것을 경장(새롭게 바꿈)했다.”(김옥균) -> 정치제도의 개혁을 말함
        + - 근대국가로의 변혁 모델을 일본의 메이지유신에서 구함
          - 정치 제도와 경제제도의 변혁 – 입헌군주제(왕은 군림하되, 통치하지 않는다)로의 개혁 주장
          - ‘동도’에 이야기하지 않음. 앞선 신기선과 비교됨. 정치체제의 개혁을 강조하므로 신기선의 논리에서는 동도를 침해함.
   2. 광무개혁: 구본신참(옛것 근본, 새로운것 참고), 동도 보전의 논리
4. **일본의 ‘화혼양재’**
   1. 사쿠마 쇼잔
      * 동양 도덕, 서양 예술 – 주자학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님.
   2. 요시다 쇼인의 ‘화혼양재론’ – 일본의 특색이 많이 보임
      * 사쿠마 쇼잔의 영향을 받아 서양의 과학기술, 특히 무기와 군대 조직의 수용을 주장. 유교의 사상을 옹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음.
      * ‘화혼’(천왕에 대한 신도사상. 신앙심)을 통한 존왕심 확립 -> 막부 타도. 왕을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개혁하자. -> **조선과 청의 결정적 차이점(정치체제)**.
        +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였기 때문에
        + 화혼이 일본만의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
   3. 막부 타도 이후, 허수아비나 다름없던(별다른 정치권력 없음) 천왕의 왕정 복고 -> 정치체제 변혁이라는 측면에서 큰 갈등 없이 입헌군주제를 수용
   4. 충효일체론: 국민국가의 내적 통합으로 작용한 ‘화혼’ -> 군국주의의 바탕이 됨.